

# 韓·美 共同常設 委員會 開催

## 原子力 및 其他 에너지 技術문제 協議

核武器 非擴散 공동목적 수행하는 韓國

원자로, 농축우라늄 공급 재확인

太陽熱 潮力 地熱 및 風力 開發技術協力 合意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기술에 관한 공동상설 위원회의 한·미 위원들은 작년에 체결된 협력협정의 범위내에서 에너지 생산에 관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진행을 검토하고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기 위하여 77.7.14~16일 서울에서 회합을 가졌다.

동 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및 실무자급 전문기술, 특히 원자력 및 기타 선진 에너지 기술의 이용 교환을 위하여 76년 6월 워싱턴에 설치되었다.

미측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미국무성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기술문제 담당부 차관보 Mr. Louis V. Nosenzo이며 한국측 수석대표는 원자력 위원회 이병휘 상임위원이다.

양국은 예측 가능한 조기 핵원료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 에너지정책을 개발, 수행하고 있다.

미측 대표단은 수입석유 의존도의 감소를 위해 미국내 에너지 계획에 대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또한 핵무기 비확산 공동목적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대해 원자로 및 농축 우라늄 연료의 확실한 공급국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삼 확인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의 장래 에너지 수요에 대한 원자력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나가는 미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미국 대표단은 핵확산에 관련된 위험을 극소화 하는 한, 세계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 장래의 핵개발을 구체화 하기 위해 77년 4월 카터 대통령 이 제안한 국제 핵연료 주기평가의 원리 및 범위를 강조하였다.

한국대표단은 미국의 의도에 적극 협력할것을 시사했고 양측은 본 평가에 있어 장래의 협력사업이 공동 상설위원회의 목적에 일치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태양열, 조력, 지열 및 중력에너지와 같은 비원자력 기술분야에서 한·미협력의 증진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양측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 협력, 탐구할 것에 합의했다.

기술 정보 교환외에 위원회는 특별 활동을 위해 관련 기술 전문가를 교환키로 합의 하였다.

한국 전문가는 미국의 원자력 및 핵연료 주기 기술 연구 및 개발 기관뿐만 아니라 원자로 허가, 검사 및 안전성관리기관에 장기간 파견훈련하고 미국전문가는 특별 과학계획을 위한 과학자 방문과 고문 자격으로써 한국을 지원키로 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간의 자매결연협정에 따라 수행될 협력 활동을 검토하였다.

차기 위원회는 내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